광양에 장애 특수학교 '햇살학교' 추진

유치원 1·초 6·중 6·고 6·전공과 4 등 총 23학급 146명 정원
전남교육청, 2022년 개교 … 순천으로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광양지역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가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학생들이 순천 선혜학교까지 원거리 통학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선혜학교 학생 과밀 현상도 완화되는 등 전남 동부권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14번지 일원(옛 광양옥룡중 부지)에 가칭 광양햇살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신설 특수학교는 1만7570㎡ 부지에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교 6학급, 전공과 4학급 등 총 23학급 146명을 정원으로 한다.

부지 매입비·시설비·교재교구비 등 총 사업비는 298억원 규모로 장애학생 통학 편의, 교내 이동 편의, 실내외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개방형 주민복합시설과 학교 공간혁신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마을 역사관, 주민쉼터, 학부모 대기실 등이 포함된 마을 사랑방, 학생 교육뿐 아니라 마을 회의나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시청각 회의실을 갖춘다. 바리스타실(카페)과 주민체육시설도 들어선다.

전남교육청은 올 1월 학교 설립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공모에 나선다. 내년 4월 학교 공사에 나서 2021년 말 건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광양햇살학교 설립 추진 배경으로 전남 동부권 특수학교 학생수가 전체 특수학교(8개교)의 40%에 육박하고, 순천 선혜학교 학생의 25% 이상이 광양지역 학생으로 원거리 통학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광양시 진월면에 거주하는 학생 A군의 경우 학교 왕복 거리만 58.2㎞로 등하교에 2시간 30분 걸리는 사례도 있다.

최근 5년간 광양지역 특수학급 및 학생수가 지속 증가하고, 광양지역 학생들이 선혜학교로 가면서 생겨나는 과밀 현상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광양지역에는 장애학생 337명이 있다. 이중 61명은 순천 선혜학교, 232명은 광양시 특수학급, 44명은 광양시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순천·광양 등 전남동부권 특수교육대상자는 지난 2014년 202명, 2015년 202명, 2016년 220명, 2017년 222명, 2018년 23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양햇살고가 문을 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광양햇살학교가 주민복합시설을 갖추고 폐교 부지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상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선우학교-다솜장애인보호작업장 업무협약

장애 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광주선우학교는 최근 다솜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 학생 현장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 학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장애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광주선우학교는 다솜장애인보호작업장 외에도 소화아람일터 등 다양한 현장실습 체험처를 찾아 학생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기회를 통해 지난 2018년 선우학교 전공과(고등학교 이후 과정) 졸업생 24명 중 12명이 취업했다.

선우학교는 손현주 교장은 "향후 장애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혁신도시를 주목하라" … 동신대 공기업 취업특별반 '눈길'

동신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반에 대해서는 학년 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재학생 2학년 43명·3~4학년 66명 대상 특별반 운영
분야별 담당교수 지정 채용정보 제공·1대1 상담까지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대학 출신 인재 채용 의무화에 맞춰 '혁신도시 공기업 취업 특별반'을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동신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혁신도시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2~4학년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공기업 취업 특별반'(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반은 ▲에너지(한전·전력거래소·한전KDN 등) ▲농생명(농어촌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문화콘텐츠(한국인터넷진흥원·방통전파진흥원 등) 분야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무원 취업 지원반과 대기업·금융·공단·기타 분야 취업 지원반도 운영한다.

2학년 43명과 3~4학년 6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방과 후 수업을 받는다. 특히 각 분야별로 담당교수를 지정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상담까지 1대1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동강대 창업지원단 선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창업의 꿈을 가진 예비 CEO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준다. 특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작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도 앞장선다.

동강대 창업지원단(단장 박경우)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광주북구와 공동 수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는 동강대는 'Youth Dream Uncover 창업지원' 분야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키운다. 만 39세 이하의 광주북구 주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5명 내외를 뽑을 계획이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 기초·심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창업공간 조성 및 시제품 제작, 창업 후 사후 지원 프로그램, 동강대 창업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e메일(dku2583@naver.com)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강대는 재학생들 대상으로 한 창업동아리 지원도 나선다. 동강대 창업교육센터는 2015년부터 '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을 펼치며 청년 창업가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조선이공대, 베트남大 교류 확대
베트남수자원대학과 인적자원개발 등 협약체결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최근 교내에서 베트남 수자원대학교와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을 비롯해 즈잉민투 베트남 수자원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에는 대학 간 교직원의 상호 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협력, 학생 교류 및 교과과정 공동 개발 논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선이공대에는 현재 총 81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과 기술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조선이공대는 호남지역 유일의 공업전문대학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현장실무중심교육을 하고 있어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조순계 총장은 "베트남대학과의 교류 협약은 대학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들과의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